

별이 빛나는 해변에서 대체 휴가, 에이스트릭트

September, 2020 | 유다미 기자

page 1 of 1

별이 빛나는 해변에서 대체 휴가, 에이스트릭트



종로구 삼청동 국제갤러리에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d'strict의 미디어 아티스트 유닛 에이스트릭트a'strict의 첫 번째 개인전이 열렸다. 몇 개월 전 삼청동 아티움의 전광판에 거대한 파도를 올린 그 d'strict다. 에이스트릭트는 d'strict 소속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제약 없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결성한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다. 이번에 공개한 작품은 <별이 빛나는 해변Starry Beach>이다. 온통 검게 칠한 공간에 두 면을 거울로 채우고 프로젝션 매핑으로 거대한 파도를 설치했다. 물론 파도 소리까지 완벽해 어두운 밤, 달빛이 비추는 끝없는 해안가를 연상시키는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오랜 비로 휴가 한 번 제대로 못 갔다면 묘한 공간 경험과 함께 이곳에서 대체 휴가를 즐겨보라.

전시 기간
8월 13일 ~ 9월 27일
전시 장소
국제갤러리
참여 작가
에이스트릭트
웹사이트
d'strict.com

산악 지역 주민을 위한 무지 투고MUJI to-go 버스



무인양품이 관광버스를 개조해 산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도쿄의 나오테쓰역 쇼핑센터에 자리한 세계 최대의 무인양품 매장 '무지 나오테쓰'의 오픈을 기념해 론칭한 '무지 투고'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다. 무인양품 제품을 가득 싣고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이나 접근성이 어려운 이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목표다. 의류, 문구류, 세면도구, 청소 및 요리 도구와 음식 등의 필수품을 이 버스에서 살 수 있다. muji.com
글 김정아 통신원

©ryohin keikaku MUJI